

인천시민문화헌장 초안에 덧붙여

인천시민문화헌장은 인천 민간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토의와 범시민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고심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전문과 총 6조로 구성된 문화헌장은 문화 주체로서 인천시민을 강조하고 문화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향후 인천시 문화예술 정책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천시민문화헌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향유, 교육, 창작권을 비롯하여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문화다양성 등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넘어 인천시와 시민들의 의무이자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헌장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이다. 그러나 ‘헌장’이라는 용어가 시민들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잘 모르는 장르의 글이며 기성세대에게는 국가주의의 권위를 느끼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여,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래는 초안 제작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1.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되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였다.

문화를 언급함에 있어 시민들이 공감하기 편하도록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정확한 단어의 사용은 그 의미는 명확할 수 있지만,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헌장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2. 인천의 문화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비류의 나라, 개항장, 해양도시, 하늘도시의 이미지, 북한 인접지역으로서의 특성, 노동자 도시 등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지리적 특성들을 헌장에 담고자 노력했다.

3.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

유네스코선언부터 각 나라의 문화선언, 타도시의 문화선언들을 리서치하며, 문화가 가지는 많은 가치들을 검토하고 최대한 포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조사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헌장제정의 또 하나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헌장은 만드는 것보다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초안 작성과정에서 살펴본 많은 도시의 문화헌장은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헌장은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이후 이것을 정책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화헌장으로 말미암아 인천시와 시민들간의 문화적 협영이 강조되고,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민관협의체 등 문화헌장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

5. 문화헌장에 대한 요구는 시민사회에서 이전부터 있어왔다.

문화헌장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늦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헌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토되고,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